

‘배달업 성행’ 무등록 오토바이 급증 시민 불안

보험료 부담 등 대부분 미신고 운행 단속 적발 시 과태료 수십만원 고작 교통사고 보상 어려워...보완책 시급

관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나 이륜차 등이 도심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사고위험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오토바이 배달업까지 성행하면서 무등록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하고,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 수십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폭주행위’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꾸준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12일 광주경찰과 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도 가입돼야 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등록된 이륜차는 6~7만여대로 이 가운데 50cc 미만 오토

바이는 5,000여대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엔 배달업까지 성행하면서 이륜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로, 50cc 미만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배달업소나 대학생 및 일부 직장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고 오토바이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배달업을 통해 운행되는 일부 오토바이와 지역 대학가 및 번화가 주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중 일부는 번호판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신고 오토바이는 ‘날치기범’ 등의 범행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이 어렵다.

무엇보다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중앙선 침범·인도 주행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길도 없다.

미신고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는 요

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2012년 도입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는 관할 지자체에 운전자가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자는 100만원 이하 번호판 미부착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부과되도록 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미신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속에 적발돼도 50~10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료 때문에 무등록 오토바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륜차 1년 보험료는 가정용 경우 4~5만원 정도지만 영업용은 최고 150~200만원에 달해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미신고 오토바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현황을 파악한 뒤 구입과 동시에 구매자 주소지를 관청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무보험·불법튜닝 오토바이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며 “무엇보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배달업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오토바이가 증가, 사고 시 보상이 어렵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지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남매일 DB

오늘의 날씨

장성	1~5	함평	0~4	곡성	-1~4
담양	0~4	영광	-1~4	함평	0~4
화순	0~4	무안	1~5	영암	0~5
영광	-1~4	영암	0~5	신안	2~5
함평	0~4	영암	0~5	신안	2~5
무안	1~5	영암	0~5	신안	2~5
영암	0~5	영암	0~5	신안	2~5
신안	2~5	영암	0~5	신안	2~5
목포	1~3	영암	0~5	신안	2~5
목포	1~3	영암	0~5	신안	2~5

일출 07:41 일몰 17:41
월출 20:26 월몰 09:37

목포: 만조 03:36 16:24, 간조 08:56 21:35
여수: 만조 11:06 23:13, 간조 04:31 17:07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48년 전 계엄법 위반 80대 재심서 무죄 광주지법 “기본권 침해 위헌·위법 무효”

광주지법 제2형사부(판사 염기창)는 48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A씨(84)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72년 10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인들과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전남 오늘부터 비 또는 눈

이번 주 광주·전남은 평년기온을 되찾으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이 많겠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옴에 따라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13일과 14일 사이 곳에 따라 눈 또는 비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날이 많겠다. /이나라 기자

수년간 딸 성폭행 친부 징역 13년

방치 친모도 유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수년 동안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씨(49)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제했다. B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 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유사강간했고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 및 신체 사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귀금속 노린 청소년범죄 잇따라

중학생들, 성인 대비 낮은 처벌 수위 악용

귀금속을 노리는 청소년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의 범죄가 약 일주일 사이 4건이나 이어졌다. 이중 3건은 한명의 중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 모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손금 제품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도난당한 귀금속을 청소년으로부터 사들인 금은방 주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도 4건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공통분모처럼 걸린다.

가짜 신분증에 속았다고 호소하며 세공비만 제하고 금값을 제대로 치른 일부는 장물 취득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피의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미성년자 신분이다.

한 강력계 형사는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확인하는 영악함을 청소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통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도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거나 낮은 범 문 닫은 가

계에 침입하는 등 단순 절도 혐의만 인정됐다.

경찰은 동구와 광산구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세 건의 범행을 이어간 피의자 한 명만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동구에서 지난 5일 손금 팔찌를 훔쳐 400여만원에 되 판 중학생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냈거나 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함께 활동한 흔적은 없다”며 “판박이처럼 닮은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잇따른 배경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www.okimscom.com

모두가 바라보는 별이 되도록!

별 하나, 그리고 넓은 들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 두셨다가,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사막을 여행하실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이 있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이미 커다란 별이 되어 있겠군요.

오컴엔커뮤니케이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깐요.

「오컴엔커뮤니케이션」은 광고기획 및 제작, 매체기획 및 구매, 온라인광고대행, 옥외광고, 프로모션, 마케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오컴엔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802호 T. 02)3445-3224, F. 02)3445-3216